

정희경(에스라대)

1. 들어가는 말

속죄(atonement)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거대담론의 중심에는 כִּפּוּרִים(속죄제/하타아트)¹⁾에 대한 이해가 있다. 속죄제는 전통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로 인식 되어왔다. 예컨대 카일(C. F. Keil)이나 쿠르츠(J. H. Kurtz)는 속죄제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위한 것이며, 산모와 같은 신체적인 부정도 보편적인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속죄제가 요구된

1) כִּפּוּרִים에 대한 번역은 논쟁 중에 있다. 본 소고에서는 '속죄제(sin offering)로 번역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본문이 명시적으로 속죄제의 목적이 Kipper('속죄하다') 성취와 죄사함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4:20, 26, 31, 35; 5:10, 13), 속죄제의 특징이 '속죄를 위한 피의식'(참조, 레 17:11)이기 때문이다.

다고 주장하였다.²⁾ 그렇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이해는 속죄제 본문에 대한 주석적 연구(exegesis)의 결과라기보다는, 희생제사(피)의 대속적 의미를 설명해주는 특정구절(레 17:11) 등에 의존하여, 속죄제의 목적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 문제만의 해결이라고 보는, 다소 교의적인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eisegesis)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결국 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레위기의 속죄제 본문들, 즉 출산(12장), 환자의 정결식(14장), 유출과 같은 생리현상(15장), 제단의 성결의식(8:15) 등을 위한 속죄제 해석에 어려움을 갖게 하였으며 비평적인 해석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2. 연구사와 방법론

속죄제가 죄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는 전통적인 입장과는 반대로 속죄제가 죄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주장이 1963년 바아(J. Barr)의 글에서 발견된다. 바아는 כִּפּוּרִים가 '제단의 정화'만을 위한 제사라고 보고 속죄제보다는 '정화제'(purification offering)라는 번역이 כִּפּוּרִים의 목적을 잘 표현해 준다고 주장했다.³⁾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1970년대 이후 유대인 학자 밀그롬(J. Milgrom)에 의한 속죄논의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견해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밀그롬은, 레위기의 제사법이 다루는 중심주제가 '죄'가 아닌 '부정'

2) C. F. Keil and F. Delitzsch, *Pentateu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10; Massachusetts: Handrickson Publishers, 1996), 523; J. H. Kurtz, *The Sacrificial Worship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1980 [reprint of the 1863 edn]), 416.

3) J. Barr, "Sacrifice and offering", in *DB*, Grant, Frederick C. and Rowley, Harold H.(ed.), (Edinburgh: T&T Clark, 1963), 874. 물론 키우치(N. Kiuchi)도 지적했듯이 일찍이 유대 랍비 전통의 주류는 כִּפּוּרִים를 '정화'를 위한 제사로 해석하였다. N. Kiuchi, *The Purification Offering in the Priestly Literature* (Sheffield: JSOT Press, 1987), 12. 밀그롬(J. Milgrom)도 대표적인 유대주석가 Rashi(1040-1105)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인용 한다: "하타트는 문자 그대로 정화를 위한 것이다(*hattā'tt* is literally the language of purification)." J. Milgrom, *Leviticus 1-16* (Anchor Bible 3; New York: Doubleday, 1991), 253.

(impurity)이며 속죄제도 부정을 위한 제사라고 주장한다.⁴⁾ 그의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는 속죄제의 피가 사람에게 뿌려지지 않고 성소나 제단에만 접촉되기 때문에, 속죄제가 사람과는 무관하고 성소나 제단만을 정화한다는 것이다.⁵⁾ 곧 밀그룹에게 피의식은 유일한 Kipper(קִיפֵר)⁶⁾ 행위이며 다른 제의 의식들은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밀그룹의 세부적인 논거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밀그룹은 어원론적 접근을 통해 속죄제 문맥의 모든 Kipper를, 기존의 ‘속죄하다’(to atone for) 대신 부정함을 닦아내어 ‘정화하다’(to purge)라는 의미로 해석한다.⁷⁾ 둘째, 밀그룹은 레위기 17장 11절의 피의식이 모든 동물제사에 해당하지 않고, 오직 피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화목제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그에게 17장 11절의 피의식은 짐승을 도살한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⁸⁾ 셋째, 밀그룹은 속죄제가 다루는 죄의 성격이 ‘비의도적인’(הַטָּוֵף, 쉘리가) 것에 주목한다. 그리고 הַטָּוֵף와 의미상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동사 אָשַׁם(아셈)을 ‘죄책을 느끼다’(to feel guilt)라고 해석하면서 실수로 지은 죄는 단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뉘우침으로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죄(sin)의 문제는 회개를 통해 해결되므로 죄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는 죄의 결과(consequence of sin)인 ‘성소 오염’이라는 것이다.⁹⁾ אָשַׁם은 전통적으로 아직 심판받지 않은 범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죄책이 있다’(to be guilty)라고 번역되어온 용어이다. 넷째, 밀그룹은 명사 תַּאֲחִיזָה가 동사 אָשַׁם의 칼

형 אָחַז(하타/죄를 짓다)가 아니라 반대의 뜻인 피엘형 אָחַז(히테/죄나 부정을 씻어내다)에서 파생되는 점을 주목하고 תַּאֲחִיזָה는 ‘죄’보다는 ‘죄가 야기한 부정을 씻어내다’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정화제’로 번역한다.¹⁰⁾

그러나 이러한 밀그룹의 견해와는 반대로 키우치(N. Kiuchi)를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은 밀그룹의 견해에 반론을 제기하며 속죄제가 죄사함을 위한 목적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키우치는 무엇보다 Kipper를 주목한다. 그는 대속죄일(16장)의 경우 ‘피의식’이 성소 정화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Kipper는 성소-제사장-백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다루는 용어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Kipper가 한편으로 ‘정화하다’(אָחַז 히테), ‘정결하게 하다’(תִּהְיֶה 티하르), ‘거룩하게 하다’(קִדְּשׁ 키데쉬)의 의미를,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담당하다’(נָשָׂא 나샤 아온)라는 의미를 함의하는 포괄적인 어휘라고 보고, Kipper 제사인 속죄제는 ‘정화’와 ‘죄사함’의 이중기능을 한다고 해석한다.¹¹⁾

노세영은 키우치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입장에서 16장에 무게를 둔 연구를 통해 밀그룹과 그를 따르는 학자들이 피의식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다고 비평한다. 그리고 속죄제는 죄사함과 정화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사이며, 특히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Kipper 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제사라고 본다.¹²⁾ 이처럼 밀그룹의 견해에 부정적인 학자들은 대부분 속죄제를 이중적인 기능(twofold function)을 하는 제

4) J. Milgrom, "Rationale for Cultic Law: the Case of Impurity", *Semeia* no 45 (1989), 103; *Leviticus: A book of Ritual and Ethic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30-31.
 5) Milgrom, *윗글*(1991), 233, 249-250.
 6) 속죄논의를 할 때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קִיפֵר'보다는 영문 'Kipper'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소고도 이를 따른다.
 7) J. Milgrom, "Kipper", *EJ* vol. X, cols. (1976. a), 1039-40.
 8) J. Milgrom, *Leviticus 17-22* (Anchor Bible 3; New York: Doubleday, 2000), 1475; "A Prolegomena to Leviticus 17:11", *JBL* 90 no 2 (1971. a), 150, 152; *윗글*(2004), 18.
 9) Milgrom, *윗글*(1991), 228; *윗글*(1991), 256-57, 301; *Cult and Conscience: The Asham and Priestly Doctrine of Repentance*(Leiden: Brill, 1976. b), 11-12.

10) J. Milgrom, "Sin Offering or Purification Offering?", *VT* 21 no 2 (1971. b), 237; 참조. BDB, 306-307. 이상의 견해는 라이트(D. P. Wright)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대부분 수용되었다. D. P., Wright, "Day of Atonement", *ABD* 2 (1992. a), 72-73; "Unclean and Clean", *ABD* 6 (1992. b), 732, 또한 웬햄(G. Wenham)도 속죄제의 주 기능을 성소정화로 본다.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Clarendon, 1979), 93-96.
 11) Kiuchi, *윗글*, 98-99.
 12) 노세영, "죽이는 속죄제물에서의 키페르(Kipper) 의미의 연구-제사장 신학을 중심으로", 「구약논단」19집 (2005년 12월), 47-50; "Kipper(קִיפֵר) 의미와 우리말 번역에 관한 제언", 「구약신학저널」25호 (2009년 10월), 13-25.

사로 본다.¹³⁾ 이는 다양한 문맥에서 등장하는 속죄제의 해석을 위해 타당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우치나 노세영의 접근은 레위기의 속죄제 본문들이 언급하는 일련의 속죄의식들, 이른바 ‘Kipper 행위’(Kipper act)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들을 포함하는지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¹⁴⁾ 속죄제의 Kipper 행위는, 피의식(קָטַף 히자/뿌리다, נָחַץ 나탄/바르다)이 핵심이지만 안수(קָבַץ 사막), 도살(שָׁחַט 사하트)은 물론 제단에서 기름을 태우는 의식(קָטַף 카타르)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다.¹⁵⁾ 그런데도 키우치는 ‘태우는 의식’의 중요성을 간과할 뿐 아니라, 모든 속죄의식이 종료된 후 진영 밖에서 남은 제물을 불살라(קָטַף 싸라프) 처분하는 ‘절차’를 속죄행위로 포함시키고 있다.¹⁶⁾

이러한 아쉬운 점은 표준적인 속죄제 본문인 레위기 4장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¹⁷⁾ 레위기 4장은 속죄제의 목적인 Kipper 성취와 죄사함이 어떻게 종합적인 속죄의식들(atonement rituals)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해 준다. 따라서 속죄제가 죄사함의 기능을 지니는 제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레위기 4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4장이 서술하는 Kipper 행위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13) 한편 조하르(N. Zohar)처럼 속죄제가 사람만을 위한 것이지 성소 정화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N. Zohar, “Repentance and Purification: the Significance and Semantics of *hṭ't* in the Pentateuch”, *JBL* 107 no 4 D (1988), 609–618.
 14) 예컨대 키우치(Kiuchi, 윗글, 35)는 “결과적으로 용서(נָחַץ)는 언제나 Kipper 행위 이후에 허락되며 결코 ‘그것들’ 이전이 아니다(Lev 4:20, 26, 31, 35; 5:10, 13)”라고 언급하면서도 ‘그것들’, 곧 Kipper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필자의 강조이다.
 15) 학자에 따라 전문적인 제의 용어인 *קָטַף*(‘끌어오다’)를 고려하여, Kipper 행위에 ‘봉헌’을 포함시키는 입장도 있다. B. Low, “The Logic of Atonement in Israel’s Cult”, *S&I* 3 no 1 (2009), 11–15.
 16) Kiuchi, 윗글, 111–142; *Leviticus* (Nottingham: Apollos, 2007), 92–97.
 17) 물론 레위기 전체적인 지평에서 볼 때, 16장(대속죄일)이 구조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핵심적인 본문이지만, 16장은 ‘속죄제 규정’보다는 ‘속죄제 규정의 실천’을 서술할 뿐 아니라 번제도 언급한다. 따라서 하틀리(Hartley, 윗글, 57)의 지적처럼 속죄제 연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본문은 4장 1절–5장 13절이라 할 수 있다. 보통 4장 1–35절은 속죄제의 표준규정으로, 5장 1–13절은 속죄제의 추가규정으로 이해된다. 정중호, ‘레위기: 만남과 나눔의 장’(서울: 한울출판사, 1992), 95.

그러므로 본 소고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레위기 4장을 중심으로 한 Kipper 행위의 개념을 통해 속죄제의 이중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문의 심층구조 분석과 기호들의 구분 및 범주화에 초점을 맞추는 구조비평(structural criticism)과, 구조비평의 보완점으로 지적되어온 객관성 담보를 위한 구문론적, 의미론적, 화용론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텍스트 언어학(text linguistics)을 절충한 새로운 방법론을 사용한다. 이러한 랑그언어학과 빠를 언어학적 분석의 상호보완적 방법론을 통해 본문이 서술하는 일련의 속죄의식들의 의미를 추적하여 속죄제의 죄사함 기능을 확인할 것이다.

3. 레위기 4장의 석의적 연구

1) 구조 분석

레위기 4장은 여호와와의 계명(קָטַף מִצְוָה 미츠보트 야웨) 중, 해서는 안 될 것을 비의도적으로(קָטַף) 행한 죄의 문제를 다룬다(4:2a[도입]). 여기에는 제의적 신분에 따라 제사장(3–12절), 회중(13–21절), 족장(22–26절), 백성(27–35절)을 위한 속죄제가 포함된다. 이 단락들은 제의본문의 기본 형식에 따라 조건절(3a, 13–14a, 22–23a, 27–28a, 32a절)과 귀결절(3b–12, 14b–21, 23b–26, 28b–31, 32b–35절)로 구성되어 있다.¹⁸⁾ 각 조건절은 헌제자가 지은 죄의 문제를 제기하고(קָטַף [의 미완료형] 죄를 짓다, קָטַף 죄책이 있다),¹⁹⁾ 각 귀결절은 조건절이 제기한 죄의 문제가 어떤 속죄과정을 통해 해결되어 죄사함 받게 되는지를 바브-완료 연계형 시리즈 형식을 통해 서술한다. 구문론적으로 미완료 동사에 연결된 바브-완료 연계형 시리즈는 미완료 동사의 어떤

18) 4장 32–35절 단락은 가난한 백성을 위한 양보단락이며 따라서 조건절(32a절)의 내용이 다르다.
 19) ‘회중의 속죄제’ 단락의 조건절에는 예외적으로 קָטַף 대신에 קָטַף 동사가 사용되지만(13a절) ‘비의도적으로 죄를 짓다’라는 의미는 동일하다.

과정이나 결과를 순차적으로 보여준다.²⁰⁾

여기에서 필자는 이상의 구조들을 4장에서 형식이나 내용면에 있어 서 기준이 되는 단락인 4장 3-12절을 대표본문으로 삼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²¹⁾

(1) 원문 분석²²⁾

אם הכהן המשיח יחטא לאשמת העם	4:3a
והקריב על חטאתו	4:3ba
אשר חטא פר בן בקר תמים ליהוה לתטאת	4:3bβ
והביא את הפר אל פתח אהל מועד לפני יהוה	4:4a
וסמך את ידו על ראש הפר	4:4ba
ושחט את הפר לפני יהוה	4:4bβ
ולקח הכהן המשיח מדם הפר	4:5a
והביא אתו אל אהל מועד	4:5b
וטבל הכהן את אצבעו בדם	4:6a
והזה מן הדם שבע פעמים לפני יהוה את פרכת הקדש	4:6b
ונתן הכהן מן הדם על קרנות מזבח קטרת הסמים לפני יהוה	4:7aα
אשר באהל מועד	4:7aβ
ואת כל דם הפר ישפך אל יסוד מזבח העלה	4:7ba
אשר פתח אהל מועד	4:7bβ

20) GKC § 49a, b; § 112 a; IBHS § 32.2.5b, c.

21) 후속단락의 귀결절들(14b-21, 23b-26, 28b-31, 32b-35절)은 4장 3-12절에서 언급된 제의절차를 요약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본문이 짧아진다. 14b-21절 단락이 비교적 긴 것은, 3b-12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속죄 선언(Kipper와 죄사함)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22) 원문의 각 절은 BHS의 분절기준(a와 b)을 따르되 석의작업에 필요한 경우 보다 세분하여 α, β 등의 기호를 부여하였다(예, 4:3ba). 본 원문 분석은 목적어들을 문두에 둔 것과 함께, 접속사 1가 유도하는 문장을 구분하고 또 들여쓰기를 통해 바브-완료 연계형이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하였다.

ואת כל חלב פר החטאת ירים ממנו	4:8aα
את החלב המכסה על הקרב ואת כל החלב	4:8aβ
אשר על הקרב	4:8b
ואת שתי הכליות ואת החלב	4:9aα
אשר עליהן	4:9aβ
אשר על הכסלים	4:9aγ
ואת היתרת על הכבד על הכליות וסירנה	4:9b
כאשר יורם משור זבח השלמים	4:10a
והקטירם הכהן על מזבח העלה	4:10b
ואת עור הפר ואת כל בשרו על ראשו ועל כרעיו וקרבו ופרשו	4:11
והוציא את כל הפר אל מחוץ למחנה אל מקום טהור אל שפך הדשן	4:12aα
ושרק אתו על עצים באש	4:12aβ
על שפך הדשן ושרף	4:12b

(2) 사역

- 4:3 만일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책이 있게 하였으면 그는 그가 지은 죄를 위해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릴지니라
- 4:4 그는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위에 그의 손으로 안수하고 그 수송아지를 그가 여호와 앞에서 도살할 것이요
- 4:5 그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의 일부를 취하여 그것을 회막으로 가지고 들어가
- 4:6 제사장이 그의 손가락을 그 피에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 4:7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향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나머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바닥에 쏟을 것이

며

- 4:8 속죄제 제물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그것으로부터 떼어낼지니 곧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 4:9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 위에 있는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 4:10 화목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서 불태울 것이로되
- 4:11 그러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를 그것의 머리와 양쪽 다리와 내장과 그 똥
- 4:12 곧 그 수송아지 나머지 모든 것을 진영 바깥 기름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그것을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기름 재 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조건절(3a절)에서 제사장의 죄의 문제가 미완료형 $\text{עָשָׂה}(\text{예헤타/죄를 짓다})$ 와 $\text{לֹא שָׁמַח}(\text{리아쉬마트/죄책이 있다})$ 의 형태로 제기된다. 귀결절(3b-12절)은 12개의 바브-완료 연계형 시리즈로 죄사함을 위한 제의절차를 순차적으로 서술한다: ① $\text{וְהִקְרִיב}(\text{[[그리고]]}^{23}\text{드리다, } 3b\alpha)$, ② $\text{וְהִבִּיא}(\text{끌어오다, } 4a)$, ③ $\text{וְשָׁח}(\text{안수하다, } 4b\alpha)$, ④ $\text{וְדָשַׁל}(\text{도살하다, } 4b\beta)$, ⑤ $\text{וְלָקַח}(\text{[[피를]]취하다, } 5a)$, ⑥ $\text{וְהִבִּיא}(\text{들여가다, } 5b)$, ⑦ $\text{וְצִבַּל}(\text{취하다, } 6a)$, ⑧ $\text{וְהִזָּה}(\text{뿌리다, } 6b)$, ⑨ $\text{וְנָתַן}(\text{바르다, } 7a\alpha)$, ⑩ $\text{וְהִקְטִירָם}(\text{[[기름을]]태우다, } 10b)$, ⑪ $\text{וְהוֹצִיא}(\text{[[남은 제물을]] 내어가다, } 12a\alpha)$, ⑫ $\text{וְשָׂרָף}(\text{불사르다, } 12b)$.

원문 분석을 포함한 이상의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피의식’과 ‘태우는 의식’이다. 여기에서 피의식이 가장 긴 바브-완료 연계형 시리즈로 강조되고 있다(5-7절[⑤-⑦]). 이런 구문론적인 특징은 제의절

23) 논의의 편의상 ‘의 번역인 ‘그리고’는 생략한다.

차들 중 피의식이 가장 중심인 것을 의미론적으로 보여주는 논거가 된다. 한편, 태우는 의식(8-10절[⑩])은 한 개의 바브-완료 연계형으로 표현될지라도 다섯 개의 불변화사 מֵאֵל 가 유도하는 기름목록(8a β -9b)이 모든 기름’($\text{כָּל הַשָּׁחַד}(\text{콜 헬레브, } 8a\alpha)$)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이는 제물의 기름이 철저히 제거되어 태워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12절의 분석을 토대로 4장의 소단락들의 표층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사장의 속죄제	희종의 속죄제	족장의 속죄제	백성의 속죄제
조건절(3a절)	조건절(13-14a절)	조건절(22-23a절)	조건절(27-28a, 32a절)
귀결절(3b-12절)	귀결절(14b-21절)	귀결절(23b-26절)	귀결절(4:28b-31, 32b-35)
3ba-4a절(봉헌)	14b절(봉헌)	23b절(봉헌)	28b, 32b절(봉헌)
4ba절(안수)	15a절(안수)	24a α 절(안수)	29a, 33a절(안수)
4b β 절(도살)	15b절(도살)	24a β -24b절(도살)	29b, 33b절(도살)
5-7절(피의식)	16-18절(피의식)	25절(피의식)	30, 34절(피의식)
8-10절(태우는 의식)	19-20a절(태우는 의식)	26a절(태우는 의식)	31a, 35a절(태우는 의식)
-없음-	20b절(속죄진술)	26ba β 절(속죄진술)	31b, 35b절(속죄진술)
11-12절(제물의 처분)	21절(제물의 처분)	-없음-	-없음-

〈표 1〉

2) 본문 주해

지면의 제약 상 필자는 여기에서 4장 3-12절 단락을 기본본문으로 삼고 위의 구조분석에서 확인된 제의 절차들을 중심으로 하여 4장 본문을 다룰 것이다.

첫째, 3ba-4a절(봉헌). (대)제사장²⁴⁾은 ‘흠 없는 수송아지’($\text{בְּקָרִים טָהוֹרִים}(\text{태우는 의식})$)를 제물로 드려야 한다. 제물 $\text{פָּר}(\text{파르/수송})$

24)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text{הַכֹּהֵן הַשֹּׂחֵט}(\text{대)제사장}^{24})$ 은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와 같이 대제사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Milgrom, *유태교*(1991), 231; Hartley, *유태교*, 59.

아지)를 수식하는 형용사 **אֵין**(타뭉/흙 없는)은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자격요건이다(레 1:3). 수송아지는 회중의 속죄제 제물이기도 하며, 솟염소는 족장, 암염소나 암양은 백성의 제물이다(4:14b, 23b, 28b, 32).

둘째, 4ba절(안수). 희생동물을 회막문으로 끌고 온 (대)제사장은 안수의식(**קִיפּוּ** 사막)을 수행한다. **קִיפּוּ**는 기대는 동작으로 짐승의 머리를 힘껏 내리누르는 행위를 말한다.²⁵⁾ 안수는 여러 의미가 가능할 수 있지만 제물과 헌제자 자신을 ‘동일시’(identification)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²⁶⁾ 동일시의 의미는 이제부터 제물이 도살되고, 피 흘리며, 기름이 제거되어 태워지는 등의 모든 과정에 헌제자가 상징적으로 동참하는 것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안수의식은 Kipper 성취와 죄사함을 위한 첫 번째 속죄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4bβ절(도살). (대)제사장이 안수를 통해 자신과 동일시된 동물을 직접 도살(**שָׁחַט** 샤하트)한다. **שָׁחַט**는 희생제물을 도살하는 것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제의용어이다. 도살은 헌제자가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의미를 지닌다.²⁷⁾ 이러한 제의적 도살의 배경에는 ‘죄인은 죽어야 한다’(겔 3:18f; 18:4b)는 개념과 이를 승복하는 헌제자의 자발성이 전제되어 있다.²⁸⁾ 즉 Kipper는 단순히 잘못을 덮거나 닦아 없애는 어원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개념을 함의한다. 이런 점에서 도살은 안수에 이어지는 속죄의식으로 볼 수 있다.

25) H. J. Fabry, “**קִיפּוּ**”, *TDOT* vol. 10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281.
 26) 안수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D. P. Wright, “The Gesture of Hand Placement in the Hebrew Bible and in Hittite Literature”, *JAOS* 106 (1986), 433-446; N. Zohar, *윳글*, 611-13; Low, *윳글*, 18-20. 밀그롬(Milgrom, *윳글*[1991], 152)은 안수의 의미를 단순히 ‘소유권 표시’로 해석한다.
 27) Wenham, *윳글*(1995), 77.
 28) Low, *윳글*, 22-23; H. Gese, *Essays on Biblical Theology*, trans. C. Keith (Menneapolis: Augsburg, 1981), 108.

넷째, 5-7절(피의식). 속죄제의 피의식 방식은 다른 제사에서는 수행되지 않는 ‘뿌리기’(**הִזָּה** 히자)²⁹⁾와 ‘바르기’(**הִנָּח** 나탄)로 이루어진다. 피의식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대)제사장이 친히 수송아지의 피 일부를 취하여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다(4:5a). 그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휘장 앞에 일곱 번을 뿌린 뒤(**הִזָּה**, 4:6b) 성소 안에 있는 향단 네 뿔에 피를 바른다(**הִנָּח**, 4:7a). 그 후 (대)제사장은 바깥 번제단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남은 모든 피를 번제단 바닥에 쏟는다(**הִשָּׁח** 샤파크, 7b).³⁰⁾ 이처럼 정교한 피의식은 (대)제사장의 죄가 일반인의 죄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하며,³¹⁾ 회막에서 가장 거룩한 성소(지성소) 내부까지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곳의 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완전성’을 나타내는 일곱 번의 피의식은 그 결과가 온전한 것임을 암시해준다.³²⁾ 이렇게 정교한 피의식은 회중의 속죄제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4:16-18). 반면, 족장과 백성의 피의식은 바깥 번제단 뿔에 바르고(**הִנָּח**)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는(**הִשָּׁח**) 보다 단순한 피의식이 이루어진다(4:25, 30, 34).³³⁾

그렇다면 속죄제 특유의 피의식 방식인 **הִזָּה**와 **הִנָּח** 의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구약에서 피를 뿌리는(**הִזָּה**) 의식은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이루어진다(출 29:21; 레 8:30). 특히 피를 일곱 번 뿌리는 것은, 대

29) **הִזָּה**의 원형동사는 **הִזָּז**이다. **הִזָּז**의 칼형(**הִזָּז**)은 일상적인 의미인 피가 튀기다(to spatter, 레 6:20[27]; 왕하 9:33)라는 뜻이다. 반면, **הִזָּז**의 히필형(**הִזָּז**)은 제의문맥의 피의식에서 피를 ‘뿌리다’(to sprinkle)의 의미이다. 따라서 속죄제 문맥에서 피의식을 논할 때는 **הִזָּז**가 아닌 **הִזָּה**라고 표현해야 한다.
 30) **הִשָּׁח**는 악성곰팡이가 발한 집에서 굶어낸 흙을 부정한 곳에 ‘쏟는’ 경우(14:41)나 사냥한 짐승/새의 피를 땅에 ‘쏟는’ 경우(17:13)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הִשָּׁח**는 속죄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거룩한 피를 ‘치분’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참조. J. E. Hartley, *Leviticus*, WBC vol. 5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2), 61.
 31) Milgrom, *윳글*(1991), 232-233; Wenham, *윳글*(1979), 97.
 32) Milgrom, *윳글*(1991), 234; A. Noordtjz, *Leviticu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2), 57-58.
 33) 보통 (대)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는 ‘큰 속죄제(피의식, 제물의 가치의 관점) 혹은 ‘불사르는 속죄제’(제물 처리방식의 관점)로, 족장과 백성의 속죄제는 ‘작은 속죄제’ 혹은 ‘먹는 속죄제’로 부른다.

속죄일(16:14, 15, 19), 환자의 정결식(14:7), 부정했던 집의 정결식(14:51),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제(민 19:4)에서 볼 수 있다.³⁴⁾ 이 피의식을 통해 그 대상이 ‘거룩’하게 되거나 ‘정화’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קָדַשׁ 의식도 ‘성소 정화’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קָדַשׁ 의식이 보다 거룩한 장소인 성소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4:6, 17; 16:14, 15), קָדַשׁ 가 קָדַשׁ 보다 강력한 피의식으로 보인다.³⁵⁾

바르느(קָדַשׁ) 피의식은 주로 ‘제단(מִזְבֵּחַ , 미즈바흐/번제단 혹은 향단)과 관련된다. 예컨대 정규적인 속죄제(4:7a α , 18a α , 25a β , 30a β , 34a β), 제사장의 위임식의 속죄제(8:15), 대속죄일의 속죄제(16:18)에서 수행된다. 치유된 환자의 경우는 신체일부에 피가 발라진다(14:14). 이 경우에도 바르느(קָדַשׁ) 피의식의 결과 제단이나 사람이 ‘정화’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제단 끝이나 사람의 신체 일부에 피를 발라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속죄이해에서 중요한 원리인 *pars pro toto* (‘부분으로 전체를 보다’)가 적용된다.³⁶⁾ 그러므로 속죄제 특유의 피의식 방식인 קָדַשׁ 의식과 קָדַשׁ 의식 자체는 공히 ‘성소정화’를 위한 목적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속죄제의 피의식과 헌제자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제단(מִזְבֵּחַ)에 뿌려지는 피에 대해서는 피의 신학적 이유를 명시적으로 설명해주는 레위기 17장 11절이 적용될 수 있다.³⁷⁾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

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죄’(Kipper)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 17:11) 곧 제단에서의 피의 역할은 결국 ‘헌제자’에게 귀속된다.³⁸⁾ 여기에서도 *pars pro toto*의 원리에 의해 피가 드러지는 것은 생명이 드러지는 것으로 간주된다.³⁹⁾ 즉 안수를 통해 헌제자와 동일시된 동물의 피가 제단에 드러질 때, 이는 상징적으로 헌제자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러지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대속의 원리이다(“내가 이 피를”, 17:11a). 이러한 대속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피의식의 의미는 죽음이 죄를 속하기 위해(Kipper) 드러졌다는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헌제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토대가 된다.⁴⁰⁾ 이 원리는 어떤 제사보다 속죄제에 가장 크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피의식은 속죄제를 특징짓는 것으로 속죄제의 피는 두 개의 제단(מִזְבֵּחַ), 곧 번제단($\text{הַמִּזְבֵּחַ הַגָּדוֹל}$ 미즈바흐 하올라)과 향단($\text{מִזְבֵּחַ הַטְּמִימִים}$ 미즈바흐 커토레트 핫사뎀)에 드러지기 때문이다(4:6, 7, 17, 18, 25, 30, 34). 나아가 제의본문에서 속죄제는 Kipper와 가장 많이 연관되어 언급된다.⁴¹⁾ 정리하면, 속죄제의 피의식은 קָדַשׁ 나 קָדַשׁ 의식 자체가 조명될 때는 ‘성소 정화’와의 관련성이, 제단에 드러지는 피가 조명될 때는 헌제자의 ‘죄사함’과 보다 많은 관련성이 있다.

다섯째, 8-10절(태우는 의식). 제물의 모든 기름을 철저히 떼어내되 화목제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4:10a). 본문은 구문론적으로 두운(תָּא 의 반복)의 사용, 목적어(구체적인 기름의 목록들)를 문두에 위치해 주목하게 하는 기법, ‘떼어내다’(וַיִּקַּח 롬, וַיִּקַּח 쉰)라는 동사의 반복 등을 통

34) M. F. Rooker, *Leviticus*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0), 110–111.

35) Kiuchi, *유헤*(1987), 124–125; Hartley, *유헤*, 60.

36) Milgrom, *유헤*(1991), 236; *유헤*(2004), 43.

37) 17:11 해석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R. Rendtorff, “Another Prolegomenon to Leviticus 17:11”, in *Pomegranates and Golden Bells Studies in Jewish and Near Eastern Ritual, Law and Literature in Honor of Jacob Milgrom*, (eds.), David P. Wright, David N. Freeman and Avi Hurvitz(ed.),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5), 23–28; Baruch J. Schwartz, “The Prohibitions Concerning the Eating of Blood in Leviticus 17”, in *Priesthood and Cult in Ancient Israel*, *JSOT* 125 (199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43–61; 왕대일, “레위기 17:10–12 해석의 재고”, 『구약신학저널』1호 (2000년 9월), 44–49.

38) S. Romerowski, “Old Testament Sacrifices and Reconciliation”, *EuroJTh* 16:1 (2006), 16.

39) B. A. Levin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 Study of Cult and Cultic Terms in Ancient Israel* (Leiden: Brill, 1974), 68.

40) Gese, *유헤* 106–108. ‘레위기 17장 11절의 피의식의 의미’나 ‘Kipper 이해’는 독립적인 논의가 필요할 만큼 큰 주제로,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41) Rendtorff, *유헤*, 28.

해 의미론적으로 모든 부위의 기름이 철저히 제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⁴²⁾ 제사 규정에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와 의 것’(레 3:16)으로 기름은 항상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레 3:17)는 규정에서도 기름은 피와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대)제사장이 떼어낸 모든 기름을 불사른다(קָטַף 카타르). קָטַף는 항상 ‘제단에서’ 제물을 태울 때 사용되는 전문용어로(레 1:13; 3:5) 제의적 중요성을 암시하는 어휘이다. 그런데도 이 의식은 그 중요성에 비해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⁴³⁾ 사실 태우는 의식은 하나님께 드러지는 어떤 것이 ‘제사’(sacrifice)의 성격을 갖게 하며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절차이다.⁴⁴⁾ 에버하르트(C. A. Eberhart)는 “태우는 의식은 어떠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합당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결정짓는다. 이 의식은, 그러므로, 제사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결론짓는다.⁴⁵⁾ 무엇보다 본문이 피의식이 아니라 기름을 태우는 의식 직후에 Kipper와 용서를 선포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4:20b, 26b, 31b, 35b). 그러므로 제단에서 태우는 의식도 필수적인 Kipper 행위로 포함되어야 한다.

여섯째, 11-12절(제물의 처분). 속죄제의 목적이 이루어진 뒤에라도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6:18[25]) 규정에 따라 주의 깊게 처리되어야 한다. 곧 제물의 남은 모든 부위(가죽, 고기, 똥 등)를 진영 바깥 기름재 버리는 정결한 곳(וְהָיָה קִדְמוֹת מִקְוֵה תַּחְסֵּר)으로 가지고 나

42) ‘콩팥’(קָטַף)은 기름기가 가장 많은 부분으로써(시 34:6) 제물의 기름 중에서 가장 중심된 부위이다.
 43) C. A. Eberhart, “A Neglected Feature of Sacrifice in the Hebrew Bible: Remarkson the Burning Rite on the Altar”, *HTR* 97 (2004), 485. 렌도르프(R. Rendtorff)도 속죄제에서 중요한 것은 피의식이지만 제단에서 태우는 의식도 속죄의 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R. Rendtorff, *Studien zur Geschichte des Opfers im Alten Israel*(publisher:[S.l.]: Neukirchener Verlag, 1967), 234; C. A. Eberhart, *윗글* 493에서 재인용.
 44) L. Morris, *The Atonement: its Meaning & Significance* (Leicester: IVP, 1983), 49, 60-61; B. Lang, “כִּפּוּר”. *TDOT* vol. 7 (Grand Rapids: WBEPC, 1997), 297; Low, *윗글* 27.
 45) Eberhart, *윗글* 491.

가 불로 나무위에서 소각해야 한다(קָטַף 싸라프). קָטַף는 제단이 아닌 ‘진영 밖’ 정결한 곳에서 남은제물을 소각하는 행위이다(4:12a, 21a).⁴⁶⁾ 그래서 속죄의식으로 보기 어려우며,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속죄행위를 의미하는 קָטַף와 반드시 구분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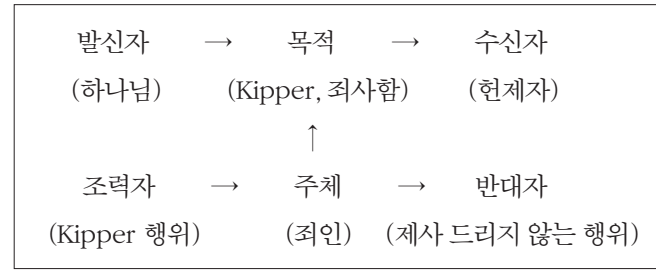
그런데 키우치는 고기를 먹는 것(6:19-22[26-29])은 제물의 처분으로 해석하는 반면,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행위는 속죄행위로 본다. 그 근거는, (대)제사장이 속죄의 대리인이자 동시에 속죄의 수혜자가 될 수 없어 자신의 죄책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불사르는 행위가 (대)제사장의 ‘죄책을 제거’(וְיָטַף אֶת-חַטָּאתָא 나싸 아온)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제사장의 속죄는 불완전하여 온전한 속죄를 위해서는 대속죄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먹는 절차와 달리 불사르는 절차가 항상 언급(출 29:14; 레 4:11-12, 21; 8:17; 16:27)되는 것도 이것이 ‘속죄의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키우치는 (대)제사장의 속죄제 본문(4:3-12)에는 ‘속죄’(Kipper)나 ‘용서’(נָסַף 니슬라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대)제사장은 정규적인 속죄제를 통해 용서받지 못한다고 결론짓는다.⁴⁷⁾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몇 가지 이유에서 (대)제사장도 일반속죄제로 용서받는다 고 보아야 하며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의식은 속죄행위로 보기 어렵다. 첫째, 거룩한 신분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제사를 집전하며 대속죄일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⁴⁸⁾ 둘째, 일반적으로 의식이 동일하면 의식의 결과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곧 의식이 동일한 회중의 속죄제의 결론적 선언인

46) Hartley, *윗글*, 61; Noordtzi, *윗글*, 59.
 47) Kiuchi, *윗글*(1987), 133-135.
 48) 그는 백성의 중보자로서 제물이 흠 없어야 하는 것처럼 항상 온전함을 유지해야 한다. 레위기는 제사장의 온전함(21:18-20)과 제물의 온전함(22:22-24)의 기준을 각각 12개의 신체적인 결함을 통해 제시한다. 모든 병명이 같은 것은 아니나, 적어도 다섯 개가 일치하고 세 개 이상은 유사하다. Milgrom, *윗글*(2000), 1876-77; 김덕중, 「거룩: 성소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용안: 킹덤북스, 2011), 5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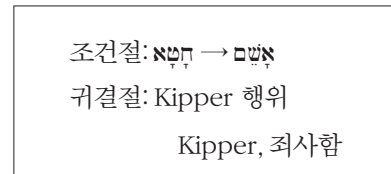
Kipper 성취와 죄사함(20b절)이 (대)제사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셋째, 진 밖에서 불사르라는 명령은,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מִלְּפָנָי)”는 속죄선언이 선포된 다음에 언급된다(21절).⁴⁹⁾ 즉, 고기를 아직 불사르지 않았는데도 ‘Kipper’가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말하자면 키우치의 견해대로 Kipper는 קִיפּוּר אֲשָׁר(죄를 담당/제거하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⁵⁰⁾ 따라서 Kipper가 성취되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과정은 제물의 처리 이전에 종료된다는 말이 된다. 이미 언급한 일상적인 용어인 קִיפּוּר의 용례도 이를 지지한다.⁵¹⁾ (대)제사장의 속죄제 단락에서 속죄 진술이 부재한 이유는 아마도 (대)제사장 스스로의 죄를 다루는 제사에서 자신을 위한 죄사함을 선언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⁵²⁾ 그러므로 (대)제사장도 정규적인 속죄제를 통해서 온전한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맥락에서 제단이 아닌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행위는 제물의 처리를 위한 ‘절차’일 뿐 속죄를 위한 ‘의식’으로 보기 어렵다.⁵³⁾

이상으로 4장의 본문주해를 마치면서 이 연구에 근거하여 4장의 심층구조를 그레마스의 행위자 모델(actantial model)을 빌어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다.⁵⁴⁾



〈표 2〉

이 모델에 의하면, 가장 중심축인 ‘전달의 축’에서 발신자이신 하나님은 Kipper와 죄사함이라는 목적을 수신자인 헌제자에게 허락하시는 권한부여자이다. 이 권한부여는 하나님에 의해 주체인 죄인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4장의 속죄제 정황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 시며, 죄인은 Kipper 성취와 죄사함을 얻기 위해 Kipper 행위의 도움을 받는다. ‘의욕의 축’에서 죄인은 제사를 드림으로써(즉 반대자를 제어함으로써) 목적을 쟁취한다. 달리 말해 범죄하고도 희생을 드리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도리어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밀그롬의 견해에서는 목적이 ‘성소 정화’가 되고 조력자는 회개(כַּפָּר אֶשְׁמֵךְ/죄책을 느끼다)가 될 것이다. 반면 키우치의 해석은 우리와 동일하되 Kipper 행위에서 ‘태우는 의식’은 제외되고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절차가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심층구조를 구조비평 관점에서 변형하여 (transformation) 4장이 다루는 속죄제들의 공통적인 표층구조를 아래와 같이 재구성하여 나타내 볼 수 있다.



〈표 3〉

49) מִלְּפָנָי는 니팔 수동형으로 죄사함의 주체가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임을 암시한다.
 50) Kiuchi, 윗글(1987), 98-99.
 51) 참조. 각주 30).
 52) Wenham, 윗글, 88.
 53) Rooker, 윗글, 110.
 54) 본래 이 모델은 내러티브 분석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방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 팻테(D. Patte)의 제안을 수용하여 제의법문에 적용해 보았다. D. Patte, *What is Structural Exesis?* (Phila: Fortress Press, 1976), 41-43, 52. 내러티브 분석에 이 모델(구조비평)을 적용한 연구 참조. 김진명,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 이야기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해석: 민수기 15장 32-36절에 대한 편집비평과 구조주의 비평연구”, 『구약논단』 40집 (2011년 6월), 45-48.

4장의 조건절들은 모두 헌제자의 범죄(חַטָּאת)와 죄책(עוֹנֵת)의 문제를 제기하고, 귀결절은 종합적인 Kipper 행위(안수, 도살, 피의식, 태우는 의식)를 통해 Kipper가 성취되며 그 결과 죄사함을 받게 되는 제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서술해준다.

4. 속죄제의 기능

이상을 종합하여 Kipper 행위를 통해 본 속죄제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속죄제의 피의식

피의식은 속죄제를 특징짓는다. 왜냐하면 다른 희생제사에서는 피를 제단에 끼얹기만 하는데(פָּרַק 자라크, 1:5; 3:2; 7:2), 속죄제에서는 뿌리거나(נָחַן), 바르는(מָחַ)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제단뿐 아니라 성소(holy place), 나아가 지성소(holy of holy place) 안에서도 피의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4:6, 7, 17, 18, 25, 30, 34; 16:14, 15). 이러한 피의 접촉으로 인해 죄와 부정으로 오염된 성소(sancta)가 정결하게 된다(8:15; 16:16, 18-20, 33). 따라서 속죄제 피의식의 일차적인 기능은 밀그룹의 주장과 같이 성소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소정화는 심각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성소가 사람의 죄로 야기된 부정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오염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으며⁵⁵⁾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레 15:31).

그런데 반드시 주목할 점은, 속죄제의 피의식은 ‘헌제자의 죄사함’을 위해서도 핵심적이라는 것이다. 곧 제단에 뿌려지는 피는 헌제자의 생

명이 드러지는 것으로 ‘제단’(מִזְבֵּחַ)에서의 피의 역할은 헌제자에게 귀속된다(레 17:11). 즉 안수를 통해 헌제자와 동일시된 동물의 피가 제단에 드러질 때, 상징적으로 헌제자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러지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대속의 원리이다. 이러한 대속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피의식의 의미는 죽음이 헌제자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러졌다는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다.⁵⁶⁾

2) 속죄제의 Kipper 행위

밀그룹이 속죄제를 성소정화만을 위한 제사로 한정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Kipper 행위와 피의식을 동등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즉 피의식 = Kipper 행위).⁵⁷⁾ 그렇지만 레위기 4장 본문에 의하면 Kipper 행위에는 일련의 의식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즉 피의식 < Kipper 행위). 그 의식들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보자.

첫째, 안수(מָחַ): 안수를 통해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한 헌제자는(4:4ba, 15a, 24a, 29a), 제물이 도살되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며, 연기의 형태로 올라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모든 과정에 자신이 상징적으로 동참한다.

둘째, 도살(שָׁחַ): 도살의 현실적인 이유는 제사절차를 위한 피와 고기 그리고 기름을 얻기 위한 것이다(4:4b, 15b, 24a, 29b). 그렇지만 죄의 결과는 본질적으로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שָׁחַ는 죄인을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루기 위해 희생동물이 죽는 의미를 지닌다.

셋째, 피의식: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속죄제 피의식의 일차적인 기능은 성소정화를 위한 것이지만(מָחַן/מָחַ [피를] 뿌리거나 바르는 것에 초점), 속죄제의 피의식은 헌제자의 죄사함을 위해 핵심적이기도 한다(מָחַן

55) Milgrom, *읽글* (1976. c), 398-399; *읽글* (2004), 32.

56) Gesse, *읽글*, 106-108.

57) Milgrom, *읽글*(1991), 249-250.

제단에 초점).

넷째, 태우는 의식(קָטַף): 이는 언제나 의식의 말미에 나타나면서 모든 제사를 요약한다(4:19-20, 26, 31, 35). 태우는 의식의 의미는 헌제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확증으로 볼 수 있다. 즉 피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헌제자는 기름을 태우는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기름을 태우는 의식까지 이루어지면 속죄제의 목적, 곧 Kipper와 죄사함(נָסַף)이 선포되고 헌제자는 죄사함을 받게 된다(4:20b, 26b, 31b, 35b).

4장에서 정리한 이상의 Kipper 행위개념은 16장(대속죄일)에서도 발견된다. 대속죄일은 일 년 동안 축적된 부정(참조, 11-15장)과 정규적인 속죄제로 해결 받지 못한 온갖 죄의 문제(16:16, 21)를 단번에 해결 받는 날이다. 그런데 대속죄일에도 도살(16:11, 15), 피의식(16:14, 15), 기름을 태우는 의식(16:25)이 있으며 남은 제물은 진 밖에서 불살라진다(16:27). 특히 Kipper 행위의 핵심인 피의식도 קָטַף와 נָסַף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도 일곱 번씩 뿌려진다. 이렇게 볼 때 16장의 의식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4:3-12)와 유사하다. 안수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속죄제 규정들(4:4, 15, 24, 29; 8:14)을 고려할 때 대속죄일에서도 필수적인 절차였을 것이다.⁵⁸⁾ 한손 안수의식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대속죄일의 클라이막스인 아사셀을 위한 특별한 두손 안수(16:21)를 강조하기 위한 서술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16장의 (도살되는) 속죄제도 4장의 속죄제와 같이 성소정화와 백성의 죄사함이라는 이중적인 목적을 갖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⁵⁹⁾ 16장뿐 아니라 8장(제사장의 위임식)의 속죄제도 4장의 피의식과 Kipper 행위가 매우 유사하다(안수, 도살, 피의식, 태우는 의식, 8:14-17). Kipper 행위

58) Hartley, 윗글, 239.

59) 16장과 4장의 속죄제는 그 문맥이 다르지만 여기에서는 Kipper 행위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춘다.

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위임식의 속죄제 역시 제단의 정화뿐 아니라 제사장의 정결(즉 죄사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8장 본문이 16장, 4장과 같이 명시적으로 죄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제사장은 평민에서 거룩한 백성의 중보자가 되기 전에 일반적인 죄들을 사함 받음으로써 자신의 대속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⁶⁰⁾

5. 나가는 말

속죄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석은 전통적으로 죄사함과 연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은 바아와 밀그롬 등 일련의 학자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고, 그 의미가 단지 '부정'과 관련되어 축소되었다. 또한 이러한 해석도 키우치를 중심으로 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비평받았다. 이들은 속죄제가 죄와 부정의 문제를 공히 해결하는 이중적인 기능이 있는 제사라는 점을 밝혀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은 이른바 'Kipper 행위'(Kipper act)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들을 포함하는지 그 개념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레위기 4장이 서술하는 Kipper 행위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레위기 4장을 중심으로 Kipper 행위의 개념 분석을 통해 속죄제의 이중기능을 구조비평과 텍스트 언어학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즉 속죄제는 특유의 피의식(קָטַף/נָסַף)을 통해서는 '성소 정화'를, 포괄적인 Kipper 행위(안

60) Noordtzi, 윗글, 98. 한편, 신체적인 부정을 위한, 산모, 악성 피부병 환자, 유출병자를 위해 드리는 속죄제 문맥에서는 Kipper 행위에 대한 서술이 없으며 Kipper 성취의 결과, 용서(נָסַף)가 아닌 정결함(קָטַף)을 얻게 된다(12: 7, 8; 14:19; 15:13, 15, 28). 따라서 레위기 전체문맥에서 속죄제는 사람의 죄를 다루는 문맥(4:3, 13, 22, 27)에서는 '죄사함'(נָסַף)을 위해, 사람이나 사물의 정결/성결을 다루는 문맥에서는 '정결'(קָטַף)/'성결'(שָׁטַף)을 위해 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12:7, 8; 14:19; 15:13, 15, 28; 8:15). 레위기의 신체적인 부정은 현대적 의미의 윤리적인 죄의 결과라기보다는 제의적인 부정 혹은 죄를 '은유/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15:31; 10-16장). 참조, 노세영, "꿈어짐(Kareth)의 형벌의 의미", '구약논단, 55집 (2015년 3월), 14; Kiuchi, 윗글(1987), 62-65.

수, 도살, 피의식, 태우는 의식)를 통해서는 헌제자의 '죄사함'을 가져오는 이중적인 기능을 지니는 제사이다.

6. 참고문헌

- 김덕중, 「거룩: 성소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용인: 킹덤북스, 2011).
- 김진명,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 이야기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해석: 민 15장 32-36절에 대한 편집비평과 구조주의 비평연구”, 「구약논단」40집 (2011년 6월), 33-53.
- 노세영, “죽이는 속죄제물에서의 키페르(Kipper) 의미의 연구 - 제사장 신학을 중심으로”, 「구약논단」19집 (2005년 12월), 31-51.
- _____, “Kipper(כִּפֶּר) 의미와 우리말 번역에 관한 제언”, 「구약신학저널」25호 (2009년 10월), 7-29.
- _____, “끊어짐(Kareth)의 형벌의 의미”, 「구약논단」55집 (2015년 3월), 9-32.
- 왕대일, “레위기 17:10-12 해석의 재고”, 「구약신학저널」1호 (2000년 9월), 34-50.
- 정중호, 「레위기: 만남과 나눔의 장」(서울: 한들출판사, 1992).
- Barr, J., “Sacrifice and offering”, in DB, Grant, Frederick C. and Rowley, Harold H. (ed.), (Edinburgh: T&T Clark, 1963), 868-876.
- Eberhart, C. A., “A Neglected Feature of Sacrifice in the Hebrew Bible: Remarks on the Burning Rite on the Altar”, HTR 97 (2004), 485-493.
- Fabry, H. J., “כִּפֶּר”, TDOT vol. 10 (Grand Rapids: WBEPC, 1999), 278-282.
- Gese, H., Essays on Biblical Theology, trans. C. Keith (Mneapolis: Augsburg, 1981).
- Hartley, J. E., Leviticus, WBC vol. 5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2).
- Keil, C. F. and Delitzsch, F., (The) Pentateu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10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96.
- Kiuchi, N., The Purification Offering in the Priestly Literature (Sheffield: JSOT Press, 1987).
- _____, Leviticus (Nottingham: Apollos, 2007).
- Kurtz, J. H., The Sacrificial Worship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1980). (reprint of the 1863 edn).
- Lang, B., “כִּפֶּר”, TDOT vol. 7 (Grand Rapids: WBEPC, 1997), 288-303.
- Levine, B. A.,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 Study of Cult and Cultic Terms in Ancient Israel (Leiden: Brill, 1974).
- Low, B., “The Logic of Atonement in Israel’s Cult”, S&I 3 no 1 (2009), 5-32.
- Milgrom, J., “A Prolegomena to Leviticus 17:11”, JBL 90 no 2 (1971), 149-156.
- _____, “Sin Offering or Purification Offering?”, VT 21 no 2 (1971), 237-239.
- _____, “Kipper”, EJ vol. X, cols. (1976), 1039-1043.
- _____, *Cult and Conscience: The Asham and Priestly Doctrine of Repentance* (Leiden: Brill, 1976).
- _____, “Israel’s Sanctuary: The Priestly Picture of Dorian Gray”, RB 83 (1976), 390-399 and in idem, *Cultic Theology*, 75-

84.
 _____, "Rationale for Cultic Law: the Case of Impurity", *Semeia* no 45 (1989), 103.
 _____, *Leviticus 1-16*, (Anchor Bible 3; New York: Doubleday, 1991).
 _____, *Leviticus 17-22*, (Anchor Bible 3; New York: Doubleday, 2000).
 _____, *Leviticus: A book of Ritual and Ethic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Morris, L., *The Atonement: its Meaning & Significance* (Leicester: IVP, 1983).
 Noordtzi, A., *Leviticu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2).
 Patte, D., *What is Structural Exesis?* (Phila: Fortress Press, 1976).
 Rendtorff, R., "Another Prolegomenon to Leviticus 17:11", in *Pomegranates and Golden Bells Studies in Jewish and Near Eastern Ritual, Law and Literature in Honor of Jacob Milgrom*, David P. Wright, David N. Freeman and Avi Hurvitz(ed.),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5), 23-28.
 Romerowski, S., "Old Testament Sacrifices and Reconciliation", *EuroJTh* 16:1 (2006), 13-24.
 Rooker, M. F., *Leviticus*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0).
 Sansom, M. C., "Laying on of hands in the Old Testament", *ET* 94 no 11 (1983), 323-326.
 Schwartz, B. J., "The Prohibitions Concerning the Eating of Blood in Leviticus 17", in *Priesthood and Cult in Ancient*

Israel, *JSOT* 12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34-66.
 Wenham, G., *The Book of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Clarendon, 1979).
 Wright, D. P., "The Gesture of Hand Placement in the Hebrew Bible and in Hittite Literature", *JAOS* 106 (1986), 433-446.
 _____, "Day of Atonement", *ABD* 2 (1992), 72-76.
 _____, "Unclean and Clean", *ABD* 6 (1992), 729-741.
 Zohar, N., "Repentance and Purification: the Significance and Semantics of הָטָ' in the Pentateuch", *JBL* 107 no 4 D (1988), 609-618.

검색어

레위기 4장
 Kipper 행위
 피의식
 태우는 의식
 죄사함

A Study on the Twofold Function of the Sin Offering in the Light of the Kipper Act by Using Structural Criticism and Text Linguistics:

Focused on Leviticus 4

Hee Kyung Chung

Ph.D. candidate, Department of the Old Testament

Ezra Bible Institute for Graduate Studies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twofold function of the sin offering (taʿx:) in the light of the kipper act. It is achieved by applying structural criticism and text linguistics to Leviticus 4 which is a representative text of the sin offering.

J. Milgrom and his followers have forcefully asserted that the function of the sin offering should be limited to the purification of the sancta since its blood is applied only to the sancta rather than to the people. But this assertion has been challenged by many scholars including N. Kiuchi who have insisted that the sin offering has the twofold functions of purification and forgiveness. Unfortunately, however, they have failed to suggest what the kipper act consists of in detail.

According to the exegetical study of Leviticus 4, the sin offering seems to have the dual function of purifying the sancta through the blood rite (קָטַף) and providing forgiveness to the offerer through the comprehensive kipper act (laying a hand, slaughtering, the blood rite, and the burning rite). Laying a hand (שָׁחַף) seems to symbolize the identification of the offerer with the sacrificial animal, and thus

the animal identified with the offerer is slaughtered (שָׁחַף) to pay the price for his sins. It seems that the blood sprinkled on the altar has the meaning of showing the evidence to God that the offerer's life was offered (Lev 17:11), and that the burning rite (קָטַף) on the altar confirms the acceptance of the offerer to the Lord. When all these atonement rituals (i.e. kipper act) are performed properly, 'kipper' and 'forgiveness of the offerer' are proclaimed (4:20, 26, 31, 35).

In short, the twofold function of the sin offering—purification and forgiveness—is more clearly revealed in the light of the kipper act.

Keywords

Lev, chapter 4

Kipper act

blood rite

burning rite

forgiveness

■ 투고일: 2016년 1월 16일

■ 심사일: 2016년 1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2월 9일